

종합

민주 정세균 사의 표명... 당권경쟁 심화

지도부 만류 최종 결정 못내려... 추후 논의 비주류 "지도부 총사퇴·비대위 구성 촉구"

정세균 대표가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등 7·28 국회의원 재보선 참패에 따른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와 비주류 일각에서는 '과감한 쇄신'에 나서기 보다는 9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경쟁'을 염두에 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진흙탕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30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기 위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지도부가 총사퇴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나 혼자 물러나는 선에서 매듭지으면 어떻겠느냐"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우상호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도부 총사퇴론'을 주장했지만 대다수 최고위원들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정 대표의 사퇴를 말리면서 최종적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해 보자"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 대표의 사퇴 의사와 관련, 일부 참석자가 "공식적 사의표명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사퇴 진의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정 대표의 거취 결정이 유보되자 비주류 측에서는 '사퇴쇼', '꼼수'라고 반발하는 등 오히려 내홍이 격화되고 있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연대는 이날 오후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집단행동에 들어



갔다. 김영진 상임집행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가 일부 지도부가 '그리하지 마소서'라고 했다고 이를 접는 단 말인가. 지금이 중세시대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규식 의원도 "정 대표가 지도부의 만류로 사퇴 의사를 번복한다면 진정성 없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특히, 비주류 측은 이날 구성된 전대 준비기구의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전대 준비위 '보이콧'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며 선거 당권경쟁을 앞두고 주류-비주류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 의견된 전대준비위의 인적 구성이 "주류 일변도의 편파적 인선"이라는 것이다.

전대준비위는 문화상 위원장과 손학규계의 김부겸, 비주류측 문화진 의원, 주류측 김민석 최고위원 등 3인의 공동부위원장을 비롯 25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도 최고위에서 "계파안배에 문제가 심각하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져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7·28 재보선 참패에 따라 뼈를 깎는 쇄신의 모습보다는 당권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당내외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쇄신보다는 당권 경쟁에 몰두하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며 "정 대표 등 지도부는 선거 결과에 과감하게 책임 지는 모습을 보이고 비주류도 구체적인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시설

광주·전남, 中 관광객 유치 상호협력해야

중국인들의 한국 방문길이 활짝 열렸다. 정부가 내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했기 때문이다. 세계 여행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비자 발급 완화로 당연히 중국인의 한국 방문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34만 명에 불과한 연평균 중국인 관광객을 2012년까지 300만 명으로 2배 이상 끌어올릴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전남 관광산업 활성화에 한 호기(好機)가 아닐 수 없다.

발처 각 지자체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들어갔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4천76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맞먹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가 중국인 유치에 사활을 걸다 시피한 것도 당연하다.

광주시와 전남도도 나름대로 중국인 관광객을 붙잡기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타시·도에 비해 관광 인프라가 열악한 상태다. 또한, 중국어 통역 등 전문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더욱이 광주와 전남은 역사,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이 한 뿌리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 따로, 전남 따로'의 대책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양 시·도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광주와 전남을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책마련에 양 시·도가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 관광업계 등과 공동으로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 지역적 기구를 구성해 체계적인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웃돈 요구 당연시 대리운전 황포 너무한다

최근 광주지역 대리운전 업체의 추가 요금 요구와 거짓 광고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다고 한다. 특히 수완지구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상당수 업체들이 뚜렷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해 시비 끝에 몸싸움까지 하는 사례도 많다는 것이다.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이 수완지구나 북구 용전동, 서구 매월동, 남구 노대동 등 20여곳에 대해 2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요금 자체가 다음 고객을 잡지 못한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이 수완지구나 북구 용전동, 서구 매월동, 남구 노대동 등 20여곳에 대해 2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추가요금 자체가 다음 고객을 잡지 못한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이 수완지구나 북구 용전동, 서구 매월동, 남구 노대동 등 20여곳에 대해 2000~5000원의 추가요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대리운전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경찰은 당장 사기 혐의 적용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광주시 역시 한시라도 빨리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타시·도와 공동 보조를 취해 정치권에 요청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박찬법 금호아시아나회장 1년만에 사임

박삼구 경영복귀 빨라지나

아시아나항공 고문 맡아

박찬법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년 만에 회장직을 사임한다. 이에 따라 박삼구 명예회장의 경영복귀가 빨라질 것이라 관측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30일 "박찬법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7월 31일부로

그림회장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작년 7월31일 금호가 형제 갈등 이후 박삼구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해 1년 동안 그룹의 구조조정을 진두 지휘해 왔다.

올해 66세의 박 회장은 수 개월 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왔으나, 그룹 현안 등과 맞물리면서 미뤄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회장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박찬법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그룹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그의 사임은 박삼구 명예회장의 복귀를 위한 수순이란 관측도 나온다. 박 명예회장은 지난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 것은 아니었지만, 전

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주변에선 그룹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구심점이 절실한 상황에서 여전히 오너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박 명예회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신과 함께 퇴진했던 동생 박찬구 회장이 지난 3월부터 본격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점도 박삼구 회장의 복귀를 재촉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의 복귀에는 채권단과 어느 정도 합의가 필요해 이에 따라 그의 복귀 시기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찬법 회장은 1969년 ㈜금호로 입사한 뒤 아시아나항공 상무이사과 전무이사를 거쳐 금호아시아나그룹 항공부문 부회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7월 회장이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장애인 1만9487명에 전남도, 첫 연금 지급

전남도는 30일 도내 중증 장애인 1만9487명에게 장애인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이나 현저한 감소한 인체 장애로 인하여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지급대상은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가운데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선정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5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80만원 이하이다. /장필수기자 bungy@

김재수 농진청장 來道

김재수 농촌진흥청장이 31일 영농 상황을 파악하고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전남에 온다. 김 청장은 나주 배연구회원과 도내 참다래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차례 특강을 하고 농민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송기종기자 song@kwangju.co.kr



원유철·송영선 의원 광주 제1전비서 T-50 체험 비행

국회 국방위원회의 원유철 위원장과 송영선 의원이 30일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체험 비행에 나섰다.

이날 T-50 항공기 일일 훈련 조종사로 나선 두 사람은 조종사들의 임무수행 여건과 어려움을 체험하고 정예 전투조종사 교육훈련시스템을 확인했다.

T-50 후방 조종석에 앉은 이들은 실제 활주로를 박차고 올라 하늘에서 중력가속도와 방향 착각 등 3차원 공간에서 항공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비행 상황을 경험했다.

조종사의 의도와 관계없이 항공기가 구름에 진입했을 때 '공간 정위 상실'을 일으키는 상황도 체험해 조종임무 수행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파악했다고 공군은 전했다. 공간 정위 상실이란 지구중력 방향에 대한 자신의 자세, 위치, 기동형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원유철 위원장은 "영공방위의 최일선을 책임지는 조종사들의 임무수행 환경을



30일 광주시 광산구 공군 제1전투비행단에서 T-50 체험비행을 한 국회 국방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가운데)과 송영선 의원(왼쪽 두 번째)이 공군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직접 체험해보고 싶어 탐승하게 됐다"며 "T-50의 우수한 성능과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수준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송영선 의원은 "T-50 탐승 체험을 통해 공군 조종사의 뜨거운 열정과 자긍심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며 "우리 공군이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됐다 됐어, 죽으란 법 없구나'

서울~광주 우등버스 1200원 오른다

서울~목포 1400원 인상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으로 다음달부터 시외버스 운임이 평균 4.3% 인상됨에 따라 구간별로는 어느 정도 오름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일반형 또는 직행형 시외버스 운임 요율은 6.9%, 고속버스는 5.3%가 각각 인상된다.

30일 인상 조정된 요율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하고 열을 뒤부터 오름 적용할 수 있어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실제 인상되는 시점은 8월10일 이후가 된다.

시외버스 운임 체계는 두 가지다. 고속국도가 아닌 구간을 운행할 때는 km당 요금이 같은 거리비례제가 적용되고, 고속국도 구간을 달릴

때는 멀리 갈수록 고정비용 하락 등을 고려해 인상이 떨어지는 거리제도가 적용된다. 주요 구간별로는 국도로 다니는 보성~목포는 9100원에서 9700원으로 600원, 서울~춘천은 8500원에서 9000원으로 500원을 더 내야 한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시외버스는 서울~여수가 900원이 오른다.

고속버스는 고속국도만 운행하므로 거리제 감계가 적용된다. 구간별로는 서울~광주 일반이 1만6900원으로 800원, 그리고 우등이 2만4900원으로 1200원 인상된다. 서울~목포는 일반 1만9600원으로 900원, 우등이 2만9100원으로 1400원이 오른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을 외국인 근로자 1만명 확대

정부는 30일 권대신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당초 2만4000명에서 작년 수준인 3만400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당초 도입키로 한 외국인력이 대부분 소진돼 중소기업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총리실 측은 설명했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9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조업 4분기 쿼터를 조기에 배정하고, 신규로 도입하는 외국인력 1만명도 모두 일반외국인력(E-9 비자)으로 해 인력난이 심각한 제조업에 8600명을 우선 배정하고 쿼터가 조기에 마감된 농·축산업(1100명), 어업(300명) 등에도 일부 배정키로 했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회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600>	<F A X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